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4일 (음력 10월 17일) 월요일

예산안 처리 '무산' ...지역 예산 어떻게 되나

여·야간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광주·전남 주요 국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공무원 증원이나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업들이 광주·전남 현안과는 큰 연관이 없는 데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적 장치까지 미뤄져 있어 국비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 도는 7조1148억원의 국비를 요구해 이 중 정부 예산에 광주는 1조7803억원, 전남은 5조5333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조율작업까지 거쳐 잠정 확정된 광주·전남 국비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12월2일)과 예산회계법상 기한을 동시에 넘기면서 일단 무산됐다.

광주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

정부예산안 기준 광주 1조7800억·전남 5조500억

국회선진화법 적용 여야 결렬시 본회의 자동부의

“여-야 쟁점 사안, 지역 현안과는 직접 연관 없어”

업,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제기관과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사업,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 솔로 문로파크 건립 등을 건의한 상태다.

전남은 여당과 국민의당 협치로 일궈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를 비롯해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흑산도 소형공항,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사업,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2018 국제외어즈맨 여수세계대회 개최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둔 상태다.

국회상황실까지 꾸러 한달 이상 현지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던 시·도로서는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에 허탈감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이 진통을 겪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도 예상돼 광주·전남 예산의 상정과 처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야 의견 대립으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둘째 주까지도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법정기한을 넘긴 건 아쉽지만,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사업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잘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도는 4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 이슈들이 지역 현안과 큰 연관이 없는 점도 다행스런 대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실패 사유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법인세 인상, 공무원 증원 등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는 몇 라운드에 거쳐 다 했고 주말과 주초를 이용해 서둘러 협상에 나선다면 빠른 시일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돼 일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대부분 쟁점이 중앙 단위 현안들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찬의 이유?

장흥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수박결함기식 부추 기간사리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흥군의회위원장 김복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은아)와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태수)는 지난 11월 20부터 29일까지 장흥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행정 집행을 감사하고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의 첫 단계로 활용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의원들의 부추기 행상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장가의 분석이다. 특히 군의회는 감사기간 중에 집행부 군수 이하 실과장들에게 돼지까지 잡는 등 150만원 상당의 만찬을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장흥군의회 집행부에 대한 만찬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 장흥군수 등의 속쇄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자료사진=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완도 신지~고금 간 장보고대교 개통...7년 공사 '끝'

사업비 963억원 투입 4.3km 사장교 형식...6일 개통식



완도군 신지면과 고금면을 잇는 장보고대교가 7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완도군은 오는 6일 오후 3시 장보고대

교 송곡휴게소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영일, 박준영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대교 개

통식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장보고대교는 지난달 28일 개통됐다.

지난 2010년 착공한 장보고대교(신지면 송곡리~고금면 상정리)는 7년여 공사기간 동안 총 사업비 963억원이 투입됐다. 총연장 4.3km의 사장교 형식이다.

완도군은 전국민 교량 명칭 공모전을 통해 해상영웅 장보고대사의 상징성을 담은 '장보고대교' 명칭을 선정했다.

이번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를 등 5개 읍면이 약산대교(약산도~고금도), 신지대교(완도를~신지도), 고금대교(강진~고금도) 등 4개 교량으로 모두 연결됐다. 이에 따라 지리적 통합과 물류난 해소,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 동부권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약산 당목에서 완도를 간 급행 간선 버스를 운행하고 의료시설 이용 셔틀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명량수도·장죽수도 조류정보

내년 7월부터 실시간 제공한다

국내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명량수도와 장죽수도의 조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 해남과 진도사이 명량수도(11.5노트)와 진도군 조도면 장죽수도(7.0노트)의 조류정보(유속, 유향, 현상)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 현장조사와 실시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됐다. 또 이번 달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6개월 간)을 거쳐 7월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진도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전광판과 선박무선통신장치(AIS), 인터넷 등을 통해 조류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해양조사원에도 자료를 제공해 조류예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형 해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통항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통항선박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FS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모화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년, 1~2%) 농지매입자금 융자 지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민이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